



권준학 NH농협은행장, 78포병대대에 위문금

NH농협은행은 권준학 농협은행장(가운데)이 지난 8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78포병대대를 방문해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11일 밝혔다. 권 행장은 이날 장병들의 병영생활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



수은, 그리스서 K-조선 수주 확대 '금융마케팅'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조선사의 수주 확대를 위해 그리스 최대 해운사 안젤리쿠시스(Angelicoussis)그룹과 각종 금융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방문규 수은 행장(왼쪽)이 안젤리쿠시스 회장 마리아 안젤리쿠시스(Maria Angelicoussis)와 포즈를 취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기보, 성남 기술창업기업 추가 금융지원 나서

기술보증기금이 경기 성남지역에 있는 기술창업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성남시와 '성남시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오른쪽)이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소상공인 위해 1억 쾌척

'배달의민족'을 창업한 우아한형제들 김봉진의 장이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1억원을 전달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김봉진 의장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으로부터 최근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3년간 1억 원씩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전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승호 기자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혁신담당관 최성희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장 이은복 △콘텐츠정책국 한류지원협력과장 신용식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장 홍지원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 김현목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조직정책관 한순기 △디지털정부국장 서보람 △지역혁신정책관 정선용 △지방재정정책관 최만림 △재난대응정책관 김성중 △민방위심의관 김학홍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획운영관 차호준

### 부음

▲정홍근씨 별세, 김영록(전남도지사)씨 장인상 = 10일 오후 11시, 서울성모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50분, 장지 서울 추모공원, 안치 경기 파주 보광사. 02-2258-5940  
▲김말남씨 별세, 박기용(용인시 백암면장)씨 장모상 = 11일, 경북 영주시 명품장례문화원 특3호, 발인 13일 오전 9시. 054-634-4444

##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시급하다



이상연의  
창업 칼럼

미국의 경제학자인 애덤 투즈(Adam Tooze)는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단지 연습경기에 불과하다면?"이라는 제목하에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그에 대한 대처를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국민도 89.6%가 코로나에 대해 그냥 버티며 지나갈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 91.5%의 국민은 계속 유사한 감염병이 증가할 거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감염병과의 전쟁, 생명을 지키고 생계위기를 버티는 응급처치 수준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위드코

로나' 시대를 맞아 견지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먼저 영업시간의 자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업종구분을 통한 강제적 시간제한을 풀어야 한다. 더 이상의 음성적 영업의 확산을 막고 양성적이며 사회적 통제와 질서 아래 농인 정상적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제적 규칙이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게는 그들의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위드코로나를 실천하기 위해선 이런 정책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

두 번째로는 세제 혜택의 차등적 허용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증세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동안 많은 지원금의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 인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부가세나 의제세입공제

액과 같은 소상공인들에 직접적인 세금은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또 증여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은 국격에 맞게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적 상행위의 증가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 카카오, 네이버, 티몬,마켓컬리 등 플랫폼 서비스 사용의 증가로 이어졌다. 많은 플랫폼 서비스가 상행위의 중심에서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틈타 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에 플랫폼 서비스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에 힘든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은 치킨집에서 1만 5000원 가격의 치킨 한 마리를 판매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중계 수수료 약 800원과 배달료 4000~5000원 가량이다. 이중 남은 이익은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중계 플랫폼마다 수수료와 배달요금의 차이가 일부 있으나 거의 비슷한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꼽는다.

현행 실시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갑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계약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등이 현실적 창업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건설철학 박사)

## '기업가정신 충만한 혁신 강국'... 혁신협, 여당에 정책 제안

###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 열고 혁신·벤처 정책 제안집 전달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혁신·벤처 정책을 제안했다.

단체가 여당에 전달한 정책 제안집에는 풍요로운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 외교, 국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한 72개의 세부 실천과제가 담겼다.

11일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혁신·벤처 분야 정책 제안집'을 열고 혁신·벤처 분야 정책 제안집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에선 강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서 (앞줄 왼쪽 3번째부터)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권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지성배 한국벤처개발협회장, 이준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송영길 당대

표를 비롯해 윤관석 사무총장, 김병욱 의원, 이소영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강삼권 회장이 송영길 당대표에게 업계에 대해 전달한 정책 제안집에는 ▲시장친화 환경조성(15개 과제) ▲기술강국 실현(14개 과제)

▲우수인재 유입 촉진(10개 과제) ▲혁신자금 공급(18개 과제) ▲성장인프라 확충(15개 과제) 등 총 72개 과제가 두루 포함됐다.

송영길 당대표는 "기업가정신이 충만한 혁신강국 실현과 선순환 혁신·벤처생태계 발전을 혁신협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삼권 벤처협회장은 "세계는 지금 '혁신 전쟁의 시대'로, 혁신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벤처기업들의 성과를 볼 때 선도자로서 충분한 역량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업계의 이번 제안 내용이 내년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맞아 대한민국이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임성재 PGA투어 역전 우승... CJ대한통운 '스포츠 마케팅' 주목

유니폼에 CJ 로고 지속 노출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강화 탄력

CJ대한통운 소속 프로골퍼 임성재(23) 선수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THE CJ CUP을 앞둔 CJ대한통운의 스포츠 마케팅도 주목받고 있다.

임성재는 11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서머린 TPC(파71)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잡아 9언더파 62타를 몰아치며 역전 우승했다.

임성재는 지난해 3월 PGA 투어 데뷔 50경기였던 혼다 클래식에서 PGA 투어 데뷔 첫 승을 거둔 뒤 1년 7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통산 100경기만에 커리어 2승을 달성했



CJ대한통운 소속 프로골퍼 임성재가 미국 프로골프(PGA)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있다.

/CJ대한통운

다. 이번 우승으로 상금 126만 달러(약 15억원)를 확보한 임성재는 시즌 포인트 랭킹 2위로 올라섰다.

임성재의 활약으로 CJ대한통운의 스포츠마케팅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PGA 투어 2승 뿐 아니라, 지난 시즌 단일시즌 버디 신기록 등 임성재 선수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모자와 유니폼에 새겨진 'CJ', 'CJ Logistics'가 지속적으로 노출돼 브랜드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다.

소속 선수의 맹활약이 이어지며 CJ대한통운의 스포츠마케팅이 'F1 그랑프리' 및 'PGA 투어' 등을 후원하는 글로벌 물류기업 DHL, 페덱스(Fedex)의 스포츠 마케팅에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세를 몰아 다음 대회인 THE CJ CUP에서 소속 선수 첫 우승까지 나온다면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강화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

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임성재 선수가 역전에 성공하며 선수에서 관심을 집중 받다보니 자연스럽게 'CJ Logistics'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소속 선수 맹활약 덕에 브랜드 긍정 이미지 전파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더 서밋 클럽(THE SUMMIT CLUB)에서 개최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THE CJ CUP에 출전하는 임성재 선수는 이번 대회 우승 기세를 몰아 내친 김에 스폰서 대회에서 소속 선수로 첫 우승에 도전한다. 임성재, 김시우, 이경훈 외에도 THE CJ CUP 대회에 참가하는 CJ대한통운 소속 골퍼는 총 7명이다. /김승호 기자